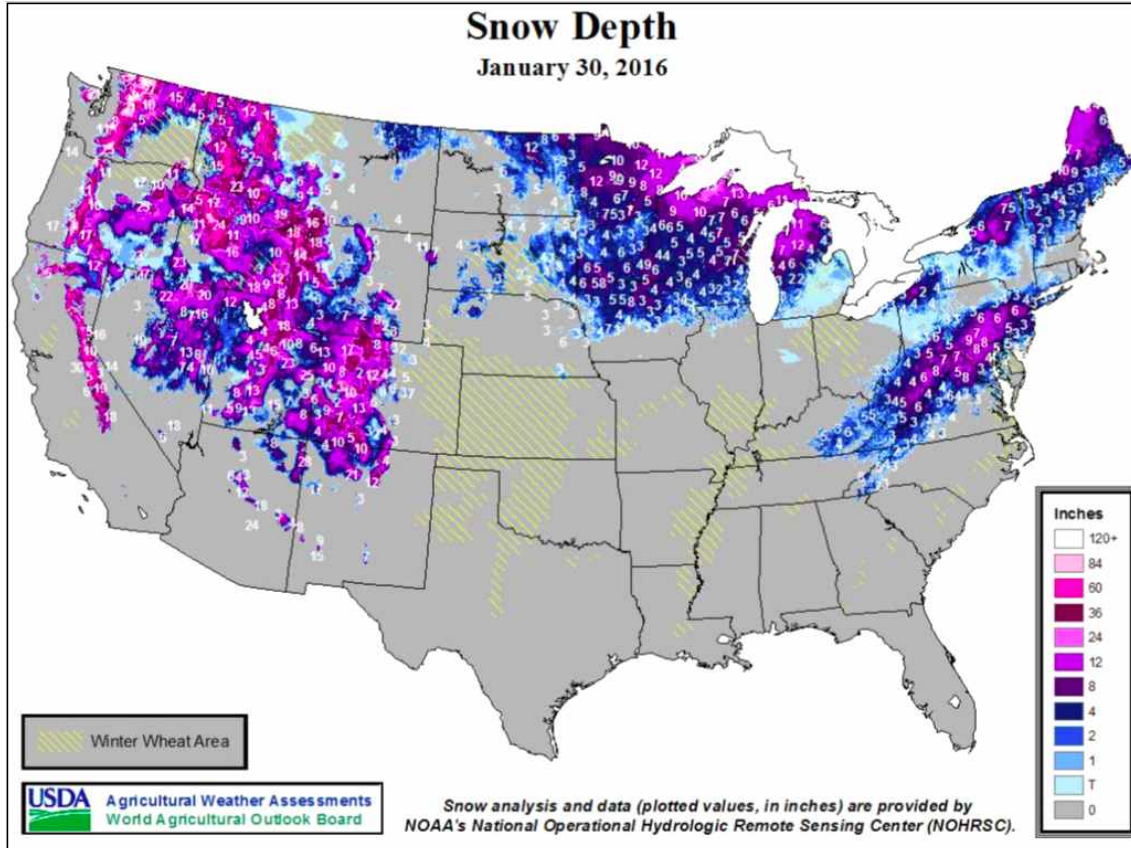




2월 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5)

□ 미국 기후 현황(1/24~1/03)

1월 22~23일 간의 폭설 이후 워싱턴 D.C와 뉴욕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눈 치우기 작업이 이루어졌다. 대서양 연안 중부의 시골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폭설을 기록한 가운데 해안 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눈 치우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지난 한 주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심한 날씨 변화가 이어진 가운데, 남부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플로리다 일대에서는 1월 28일 내린 비로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서부에서는 주 중반까지 비교적 평온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이후 많은 비가 내렸다. 고온현상은 중부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남부 평원 일부 지역에서는 주 후반까지 낮 최고기온이 80°F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북부와 중부 평원 지역에서도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 탓에 밀 재배지역을 덮고 있던 대부분의 눈이 녹아내렸다. 대평원과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소 10°F 이상 기온이 높았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려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가뭄을 해소해 주었다.



□ 농업 현황 요약(1/25~1/31)

지난 1월 마지막 주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량은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북서부와 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 동안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인 가운데, 미네소타와 North Dakota에서는 평년보다 최소 15°F 이상 기온이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1/24~1/30)

■ 유럽: 중부와 동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 높은 기온으로 인해 눈 대부분이 녹아내렸다. 잠깐 동안 추운 날씨가 찾아왔지만 제트기류의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5~9°C 이상 기온이 높았다. 독일, 폴란드, 발칸반도 인근 국가들에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1~25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렸다.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고, 저지대 일부는 침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부와 북부의 곡창지역에서는 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생육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북부와 중부, 이베리아 반도 일부 지역에서는 10~30mm 내외의 적절한 비가 내린 가운데 토양 수준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남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특히 안달루시아의 경우 지난 11월 1일 이후 누적 강수량이 평년 수준의 절반에 그치는 정도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 구소련(서부): 남부 곡창지역을 뒤덮고 있던 눈 대부분이 녹아내렸고, 북부에서는 눈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5~25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려 눈 대부분이 녹아내렸지만, 밀의 동해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보다 북부지역인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 동부 일대에서는 밤 기온이 영하 20°C까지 내려가고 있지만 10~30cm 가량 쌓인 눈으로 인해 동해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기온은 평년에 비해 5°C 정도 낮은 상황이지만,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7°C 정도 높은 날도 있었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지난 2주간 이어졌던 맑고 더운 날씨 이후에 10~50mm,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7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 전역에서도 20~7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여름작물의 생육 상황은 매우 좋은 편이다. 여름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동부 일대는 평년보다 기온이 1°C 정도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북부와 중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려 한동안 이어졌던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었다. 중부의 Cordoba, Buenos Aires 등에서는 10mm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C 정도 낮았는데 반해, Parana 강 유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C 정도 높았다. 하지만 주 후반부로 가면서 차가운 저기압의 이동으로 기온은 다시 낮아졌다. 보다 북부 지역인 Salta, Santiago del Estero 동부 등에서는 25mm내외의 비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월 28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99%, 94%이고, 밀 수확률은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의 대두, 면화 재배지역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등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내륙의 Bahia 일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Tocantins 등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남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비는 북부의 Sao Paulo까지 내렸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몇 주 전 홍수 피해를 복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피해가 우려된다. 중부 일대와 Parana,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